

보성군 나무 1000만그루 심어 '도심 숲세권' 만든다

숲길 만드는 등 도심 공원화 유휴토지에 대규모 꽃단지 조성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공사도

보성군이 도심 생활권에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어 숲세권을 구축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를 공원화하고 임기 내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숲과 산책로를 활용해 사업 간 연계성·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주민 이동량이 많은 곳에 사철나무 등을 심어 도심 속 숲길을 조성한다. 숲길 조성 구간은 보성역과 보성향토시장 200m 구간으로 이곳에 단풍나무 등 황금사철나무를 심어 숲세권을 조성한다. 식재 수준은 단풍나무 20그루, 황금사철 2000그루, 야생화인 송엽국 1500본이다. 인도와 나무 사이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한 나무를 가공해 만든 나무 집을 깔아 흙먼지를 막는다. 또 단풍나무 길과 연계해 유휴 토지 1000㎡에 해바라기 종자를 파종해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꽃단지도 조성한다.

보성군은 도심 속 숲길을 연결해 동운천·향토시장·열선루·보성을 복합커뮤니티까지 있는 도심 산책로로 만들 계획이다. 오는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향토 시장부터 보성역 부근 1.7km 구간에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한다. 이 곳에는 하천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만들어진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 역점 시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인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생활권에 있는 공터와 유휴지를 활용해 생태·휴양 숲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도심에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어 숲세권을 조성한다. <보성군 제공>

고흥 발포항에 부잔교 설치키로 소형어선 접안 불편 해소

고흥 발포항에 부잔교를 설치해 소형어선의 접안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국가 어항인 고흥군 도화면 발포항에 국비 1억5000만원을 들여 길이 30m, 폭 6m, 높이 1.2m의 부잔교 1기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어항에 설치하는 부잔교 시설은 조위(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해수면의 높이)차와 관계없이 선박의 상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로, 물양장의 엘리베이터와 비슷한 시설이다. 발포항은 김 양식 어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어항으로 소형 어선이 많아 부잔교 시설이 절실했다. 남기문 여수해수청 어항건설과장은 "발포항 내 부잔교 시설이 갖춰지면 소형 어선 위주의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하선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순천 동천 다양한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 서식 확인

수달·흰목물떼새 등 449종 관찰 생태복원 지표종인 은어도 발견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생물

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도심 속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달과 구렁이,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과 천연기념물 9종 등 모두 449종의 생물을 관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바이오횰즈' 행사를 주관한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시민위원회가 확인했다. 시민위원회는 시민과 학생, 어린이, 전문가 등 150여명의 탐사단을 꾸려 지난 23~24일 동천을 탐사했다.

이번 탐사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 급인 수달과 구렁이, II 급 흰목물떼새가 관찰됐다. 두견이, 소쩍새, 솔부엉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 9종도 확인됐다. 특히, 하천의 생태복원 지표종인 은어가 발견돼 관심을 끌었다.

바이오횰즈 행사에서 확인된 생물 다양성 자료는 보고서로 발간해 도심 속 생태축 연결과 동천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년간 동천을 가꿔온 결과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시민위원회는 지난 23~24일 동천을 탐사했다. <순천시 제공>

곡성 석곡 시가지 '뉴트로 1973'으로 상권 부활 예고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 선정

곡성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골목경제 회복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휴폐업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악순환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이번 공모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상인공동체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을 서류 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 10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곡성군은 석곡 시가지 상권 회복을 위해 '한들한들 피어나라 뉴트로 1973' 사업으로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비는 국비 4억원을 포함해 총 8억 원이다. 이를 통해 곡성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석곡면 석곡



곡성군 석곡면이 행안부의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에 선정돼 시가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 일대의 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표 사업은 석곡 명물인 흑돼지 음식과 관련된 특화거리 조성 및 점포를 활용한 마을 안내플랫폼, 정년마켓, 공유주방 등이다. 여기에 스마트더,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와 즐거움을 높인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상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상인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 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시, 관광 홍보 웹드라마 '호점몽' 오늘 시사회

여수시는 관광 홍보 웹드라마 '호점몽' 시사회를 29일 오전 10시 전남문화회관에서 연다. '호점몽'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2100년, 위기감을 느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인공 수정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로봇이 키우는 시스템으로 사회가 유지된다는 설정을 담고 있다. 여수에 사는 청년 여미리가 2023년의 여수로 시간여행을 하면서 소라면 중촌마을 출신의 유튜브 대성과 그녀를 짝사랑하는 소꿉친구 동우와 만나 삼각관계를 이루는 이야기다. 드라마는 5화로 이뤄졌으며 총 45분 분량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주인공들이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다니며 유튜브 촬영을 하는 모습을 통해 아름다운 여수의 모습이 화면 가득 펼쳐진다. '호점몽'은 시사회 이후 유튜브에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여수시는 2015년부터 해마다 관광 홍보 웹드라마를 제작해 발표해왔다. 지난해 여순사건을 토대로 만든 웹드라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의 공식 초청을 받아 황금극대상을 받았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여수가 웹드라마로 국내를 넘어 세계 속의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각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Vitamin House
귀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